

## 돌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신학적 제안

김호연 (서울목양교회)

- I. 들어가는 말
- II. 근대성의 문제: 주체성과 사회성
- III. 근대 정치경제학의 논쟁: 자유주의대 사회주의
- IV. 좋은 경제-사회를 위한 최근의 논의들
- V. 개혁신학적 종합: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 VI. 맺는 말: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시론적 제안

---

• ABSTRACT •

---

## A Reformed Theological Proposal for the Recovery of Economy of Care

Kim, Ho-Yeon

Modernity has overestimated su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human beings. By doing so, it has forgotten God in its memories and lost its faith in God. It entails the loss of the sense of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before God, which has been an important Christian ethical value for the divine economy, the economy of care in another word. The modern political economy has concentrated on this visible and material world so that it has neglected the qualitative value of life. These are the deserved consequences of modernity resulting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problems.

How have these consequences been developed? What are their main problems in the Christian ethical sense? What serves the Christian theology have to act for the recovery of economy of care as the good economy in God's created order? In this essay, I will briefly trace the course of modernity's losing the Christian ethical values with its metastasis to modern political economy. And so, I will consummate the five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economy derived from the recent ethical, sociological, and theological discussions. Lastly, I will present a Reformed theological proposal for the recovery of an economy as an outcome of these researche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a current economy by rehabilitating the lost values of modernity, which have been passed on through the Christian faith. They are the faith in God, the sense of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before God, and the qualitative value of life. We will retrieve the current economy with these values, which lead to the ethics of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of life before the presence of God and the recognition of the eschatological dimension of economic life with the divine capitals that the church will develop and interpret for the socioeconomic recovery in our age.

**Key words:** Economy of Care, Reformed Theology,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Eschatological Dimension, Cooperative Perspective

---

## I. 들어가는 말

호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넓은 의미로 볼 때 사유의 진보로 이해될 수 있는 계몽주의 사조는 인간을 공포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세계의]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완전히 계몽된 세상은 승리의 재앙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혹평하였다.<sup>1)</sup> 니체(Friedrich Nietzsche)를 기점으로 근대 후기의 사상가들은 근대성이 구축한 합리적 세계(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견 중세 말 유명론자들이 던진 질문의 재판이면서 동시에 근대말적 실재론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렇다면 근대성의 주요 문제와 요지는 무엇인가? 이들은 전통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기독교 경제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근대 정치경제학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최근의 논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 신학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경제는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 차원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좋은 경제(Good Economy)를 지향하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개인과 사회(세상)의 구축과 양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

1) Max Horkheimer and Theodor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 Edmund Jephcot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1.

2) 근대말적 실재론은 불확정적 실재를 전제하는 점에서 중세말의 실재론과는 다르다. 그러나 하이데거식의 존재론(이 역시 일종의 형이상학이나 아니냐의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은 근대성이 구축해온 세계(관)에 대하여 유명론적 질문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근대말적 논의들은 실재론을 재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재로는 근대성의 주제를 다양성을 매개로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 칼빈의 이상과 같이 하나님이 설치한 구원의 기관인 교회와 세상은 좋은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립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이끌어 낼 것인가? 분열과 대립이 난무하는 힘의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과 화합의 사회-경제로 나아가갈 것인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와 경제의 건설은 요원한 것인가?

건강한 사회-경제윤리 구축을 위하여 현대사회는 근대성의 전개과정에서 상실 또는 퇴색된 기독교 윤리적 가치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윤리, 그리고 삶의 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윤리적 가치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경제로의 이행을 기대한다.<sup>3)</sup> 좋은 사회-경제 혹은 돌봄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개인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주체로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된 주체들은 대속적 세속 기관과 문화를 견인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삶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순환을 이끌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의 일환이다. 이것은 칼빈의 신학적 해석에 기댄 “하나의” 기독교 윤리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실 근대의 사회경제론은 신앙적 논의를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경제를 위한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근대적 어리석음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신앙적 차원을 무시한 채 온전한 경제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독교 신학은 이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다고 세상을 배척하거나 다스려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와 세상은 대립이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신적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기독교 신학은 적절한 용어를 찾고 정의하고 그리하여 소통의 기초를 준비할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 II. 근대성의 문제: 주체성과 사회성

근대성의 당면과제는 중세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와 가치체계 창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성은 개인의 주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근대 초기 사회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공공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홉스(Thomas Hobbes)는 개인의 안녕과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절대 권력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생명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국가권력에 그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개인은 자신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이러한 권리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 홉스는 이러한 국가 창설에 동의하는 개인들 위에 군림하는 강한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계와 같은) 전제권력의 등장을 주장하였다.<sup>5)</sup> 이러한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의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까지도 이 통치 권력의 우산 안에 들어와야 한다.<sup>6)</sup> 그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적 분립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로크(John Locke)는 홉스와는 정 반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데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권력 분립을 지지하였다. 그는 개인의 저항권, 국가권력의 창설과 변경의 권리를 인정하였다.<sup>7)</sup> 따라서 그는 근대 자유주의, 민주적 시민사회주의의 주창자로

4) Thomas Hobbes, *Leviathan*, ed. Richard Tuck, revised student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 개인은 리바이어던 Leviathan 이라는 기계적, 유물적 통치기구의 일부가 된다.

6) Cf. Hobbes, *Leviathan*, chapter 26, 183-200.

7)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eter Laslett, student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개인들의 동의에 의한 국가 권력의 창설을 주장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개인의 권익 아래 두었다. 그에 의하면 공무집행자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탁자들이다.<sup>8)</sup>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민주주의는 홉스보다는 민주적 주체성을, 로크보다는 사회적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존재로서 타인에 대하여 상호 협력적일 수도 있고 해로우도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sup>9)</sup> 그에 의하면 인간의 평등성은 역사적 사회화의 과정에서 와해되었는데<sup>10)</sup> 이로써 인간의 중립적 본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루소는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한 통치를 지지했다.<sup>11)</sup> 이로써 루소는 역사적으로 진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근대 초기의 사회철학자들의 논의는 몇 가지 기독교 사회 윤리적 문제를 노정한다. 이들은 근대의 주체성에 의해 창설된 국가 혹은 통치이념으로서의 일반의지(루소)를 주장함으로써 근대성의 일반명제 즉, 주체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들에 의해 창설된 과학적 세계(관)를 그대로 사회철학에 전이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것은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정점에 달한 근대성의 문제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따라서 그 앞에서의 참된 연대와 책임의 윤리를 상실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 질적 문제가 도외시되고 양적 성장에 몰

---

II.13.155: 370-371.

8) *Ibid.*, II.14.164: 377.

9) Jean-Jacques Rousseau,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in *The Social Contract and the Discourses*, trans. G. D. H. Cole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10) *Ibid.*

11) Cf.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in *The Social Contract and the Discourses*, I.6: 190-191, III.1: 227-232.

두할 수밖에 없는 기초가 여기에서 제공되었다.

홉스는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여 신적 초월성마저 제거하였다. 그의 유물적 국가관은 개인의 자율성마저 국가라는 기계적 운동에 종속시킴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말살하였다. 로크는 개인의 동의와 권리의 극대화에 몰두함으로써 오히려 폐쇄화된 집단 간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주장을 관철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 혹은 동의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제외된 개인들은 필연적으로 동의에 의해 창설된 국가나 집단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역주의요 집단적 패권주의의 원인이 되었다. 루소는 가장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일반의지”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협약에 달려 있다고만 말하는 이상 그 역시 근대성의 한계를 공유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집단주의적 시각(홉스)은 개인의 책임성을 집단의 운영에 매몰시켰고 자유주의(로크)는 집단의 책임을 망각하였다. 절충안(루소)은 양자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논외로 하는 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책임적 주체성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자의 단점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책임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근대의 합리적 주체성에 귀속되는 한 참된 책임성은 담보될 수 없다. 그것은 기껏해야 개인의 의지나 합의된 집단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가변적 책임성에 불과하다.

칸트는 근대성의 정점에 섰다. 그는 두 가지 전제, 즉 초현상계와 분리

12) 예컨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존재로 본 것은 어거스틴 이래 기독교적 인간관이다. Cf. Augustine,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2003), XII, 22: 502-503. 루소는 “우리들 각자는 자기 인격과 보편적 힘을 일반의지의 고결한 지시아래 두어 통합적 능력에 있어 각각의 구성원들을 전체를 이루는 개별적 부분으로 받아들인다”고 적고 있는데(Rousseau, "The Social Contract," in *The Social Contract and the Discourses*, I, 6: 190-191), 여기서 일반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기독교 신학적이다.

되는 현상계와 순수이성의 초월론적 동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신의 “초월론적” 형이상학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그가 당대에 직면했던 세계의 문제 즉, 흄(David Hume)의 경험적 회의론과 로크(John Locke)의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삶을 위한 종합적 보편원리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초현상계로 몰아내고 책임성의 문제를 개인과 현상계 안으로 국한시키는 불의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회-경제의 현실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세계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쯤으로 전락하였다.

근대의 합리적 주체들이 구축한 과학적 세계 안에서 근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윤리는 기껏해야 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유사-책임성으로 대체되었다. 정치경제적 관심이 양적 가시세계에 국한 되면서 삶의 질적 문제는 도외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대성의 일반적 특징들은 전통 정치경제학의 영역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 III. 근대 정치경제학의 논쟁: 자유주의대 사회주의

근대 정치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미스(Adam Smith)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윤리철학자였다. 그는 오랜 동안 글래스고우 대학의 윤리철학 교수로 봉직하였고 이 시기에 유명한 『도덕감정론』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그가 후에 저술한 『국부론』의 토대가 된다. 스미스는 이들 작품들을 통하여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사회-경제 주체들이 공공선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사회를 구상하였다.<sup>13)</sup>

13) 스미스를 단지 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도덕감정론』을 통하여 스미스가 사회 통합의 근거와 기준으로 제기한 공감(Sympathy)과 보편적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론을 『국부론』에서의 주장과 연계하여 볼 때,<sup>14)</sup> 우리는 그의 분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익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국부 창출을 위한 협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회-경제 주체들 상호간의 조율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스미스는 각 개인의 공감성에서 유추되는 “보편적 관찰자”의 작용을 통하여 보편적 도덕 판단과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여기에서 건전한 상호소통과 교환을 통한 부의 생산과 확대, 공유가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하여 보편적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사회가 구상된다. 스미스는 근대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창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 사회윤리를 정치경제의 영역으로 전이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감성과 보편적 관찰자론의 근거를 자연법칙에서 찾으므로써 스토아주의의 한계 안에 머물렀다.<sup>15)</sup> 니이버(Reinhold Niebuhr)가 비판한 바와 같이 근대의 낭만주의(Romanticism)는 비록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를 주장함으로써 이성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지만 이들의 자연이란 결국 이성의 이해 범주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성주의와 같은 근대성의 한계 안에 있다.<sup>16)</sup> 스미스는 바로

---

계몽주의자였으며 스토아주의자였고 일방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통합적 사회를 구상한 사회윤리학자였다.

14) 『국부론』의 주장들을 『도덕감정론』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김병연 같은 이들이 이미 두 저서의 연관성 속에서 스미스의 사회통합적 사회윤리관을 잘 소개하였다: 김병연, “애덤 스미스가 본 사회통합과 경제 성장,” 『현상과 인식』, 봄/여름, 2007: 13-35.

15) 케네디는 스미스의 자유방임(*laissez faire*)은 개인들이 아니라 “자연의 자유방임(*laissez faire of Nature*)”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Gavin Kennedy, *Adam Smith's Lost Legacy*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2005), 141).

니이버가 비판한 낭만주의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스토아주의자였다.

그는 국가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한계도 극복하지 못했다. 국부의 기원을 한 국가 내의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분업)과 자발적 조절작용(수요-공급)에서 찾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책임성 상실이라는 근대의 근본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후대의 정치경제학적 논의가 자유주의대 사회주의의 대결로 흐른 원인은 가시적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성장에 주목한 그의 정치경제학적 논의 안에 이미 숨어 있었다.

맑스(Karl Marx)는 노동가치설을 중심으로 당대의 자본주의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에게 있어 물신주의(Fetishism)는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핵심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질·양, 주·객 전도의 현상을 고발했다. 맑스는 상품과 노동의 교환시장을 통하여 인간과 노동이라는 질적 가치가 양적으로 평가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이 노동자로부터 이탈하고 이들이 상품의 교환과 동시에 양적 처분의 대상으로 교환됨으로써 인간이 도구화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맑스에게 있어서 분업은 국부창출을 위한 협력의 과정이 아니라 노동 착취를 위한 수단이며 수요-공급은 사회적 필요를 조절하는 작용이 아니라 자본적 축재를 위한 이기적인 교환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맑스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필요적 노동”을 통한 생산과 분배를 주장했다. 그는 사적소유의 폐지를 전제한 공산사회를 추구하였다. 여기서 맑스가 말한 사적소유의 폐지는 사유재산의 부정 을 말하지 않는다. 맑스는 이 개념을 통하여 오히려 사적재산의 공적사용을 주장한다.<sup>17)</sup> 맑스는 이러한 공산적 사회경제질서의 출처를 무산계급

1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2 vol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17) K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 of 1844," in *The Marx-Engels*

에서 찾았다. 맑스는 무산계급은 자본적 착취의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잉여가치 창출을 통한 축재의 동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사적소유의 폐기를 통한 공산사회 건설의 이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맑스의 정치경제이론은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이에크(F. A. Hayek)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한 것과 달리 (물론 그와 같은 위험은 상존하지만) 맑스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무산대중의 동의(Consensus)를 통한 사회적 필요생산과 분배를 의도했고 이를 통하여 당대의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율적 개별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믿었다면 맑스는 집단(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믿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맑스 역시 근대성의 한계 안에서 사유한 철학자였다. 그는 합리적 이성의 판단을 신뢰하였고 사회적 필요생산과 분배라는 물적 조절을 통하여 이상적 사회-경제체제가 구현될 것을 희망하였다.

하이에크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제본스(William S. Jevons), 멩거(Carl Menger), 왈라스(Léon Walras)로 대변되는 한계혁명(Marginalist Revolution) 이래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와 미제스(Ludwig Mises)를 잇는 4세대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주자로서 유명한 『농노의 길』을 집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당대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하이에크를 위시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체주의성과 비합리성, 비효율의 위험을 지적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운용이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질 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있어 개인주의는

---

*Reader*, ed. Robert C. Tucker, 2nd ed. (New York: W. W. Norton, 1978), 84-93.

반드시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은 예컨대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향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확장시킬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18)</sup> 이들은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바람직한 사회-경제체는 집단적 계획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가측적인) 법의 지배를 요구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하여 지지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근대성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에게 있어 스미스의 사회성은 현저히 저평가되었다. 폴라니(Karl Polanyi)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sup>19)</sup> 자유주의자들은 비록 사회주의 경제를 이상론이라고 비하하지만, 이들의 이념 역시 일종의 근대적 신념<sup>20)</sup>이며 따라서 또 다른 근대관 이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 같은 사회 윤리적 가치들은 근대성의 전제로써 이미 제거되었다. 사회-경제 운용의 책임이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짐으로써 어디에서도 신적 간섭이나 삶의 질의 문제가 주도적 관심사가 될 여지는 사라졌다.

케인즈(John M. Keynes)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관찰함으로써<sup>21)</sup> 전통 경제학(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에 수정을 가하였다.

18) Michael Novak,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York: Madison Books, 1991). 이러한 견지에서 하이에크가 논한 사회에서의 지식의 사용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Cf. Hayek,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 no. 4 (September 1945): 519-30.

19)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1944).

20)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책 *The Good Society* (New York: Vintage Books, 1992)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의 문제를 이와 같은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21)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케인즈의 불완전 시장을 특수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Cf. Axel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 of Keyn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전통경제학은 정태적 완전시장을 전제했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말해 주듯이 이들은 완전시장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케인즈가 발견한 비자발적 실업이나 시장의 부정적 순환과 지속적 경기침체의 가능성과 같은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이러한 전통적 전제를 의심할 만한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고 케인즈는 여기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발견했다.

케인즈를 기점으로 완전시장을 전제한 공급중심의 전통경제학은 불완전 시장을 일반적으로 보는 수요중심의 수정경제학으로 전환되었다. 경기변동의 주관적 요인들이 인정되었고 경기의 악순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케인즈는 경기의 선순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재정, 금융 정책적 개입을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유효수요의 증대)하여 실업률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케인즈의 수정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sup>22)</sup>은 근대성의 한계 안의 것이었다. 케인즈의 정부는 그 기능이 결국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능력이 달린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같은 신앙을 전제한 정치경제학적 해법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단기분석과 대책을 통하여 장기적인 경기회복의 기대를 내비친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장기적, 종말론적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며 근대적 합리성의 특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상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근대적 신념이 정치경제학에 전이된 결과들이다.

22) 비록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의 경제 이론을 맑스의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주도권을 인정한 개인주의의 보호자이지 전적인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vestment, and Money* (1935; reprint, San Diego: Harvest/Harcourt, 1964), 380-381.

#### IV. 좋은 경제-사회를 위한 최근의 논의들

정치경제학을 포함한 전통의 “(사회)과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윤리를 망각하였고 주로 물리적 가시세계 내에서의 양적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현재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노정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성장의 경제학에 대한 반성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달리와 캅(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폴브레(Nancy Folbre)는 가족가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굳즈워드와 드랑쥐(Bob Goudzwaard and Harry de Lange)는 화란 개혁주의 전통에서 종합적 대안 경제를 논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영역 이외에 윤리적,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도 좋은 사회-경제를 위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니버(H. Richard Niebuhr)와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책임윤리적 관점을, 벨라와 그의 동료들(Robert N. Bellah and et. al.)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쏘힐(John Thornhill)과 맥팔랜드(Ian McFarland)은 각각 카톨릭과 루터교신학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좋은 사회-경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주장들을 하나씩 소개하기보다 이들의 주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좋은 사회-경제를 향한 사회-경제 윤리적 시사점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개혁 신학적 평가 및 종합, 그리고 몇 가지 시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sup>23)</sup>

이들이 제기한 사회-경제 윤리적 시사점들은 무엇인가? 첫째, 대안 경제-사회적 논의들은 개인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연대와 책임의 문제를 부각해 주었다. 달리와 캅은 생태학적 상호연관성, 전체성의 관념에서 개

23) 다만, 달리와 캅, 폴브레, 그리고 굳즈워드와 드랑쥐의 대안경제적 관점에 대한 소개는 필자의 논문, “돌봄의 경제를 향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2012): 225-249를 참조하시오.

인을 공동체 내적인 존재(Person in Community)로 파악하였다. 참된 의미의 근대적 주체성은 독단적 개인이 아니라 사회 내적으로 타인과 연관된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책임적인 주체라는 것이다.<sup>24)</sup> 폴브레는 돌봄의 가족적 덕목을 제도,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확장,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5)</sup> 이로써 그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강화된 상호관계성을 의도했다. 니이버(H. Richard Niebuhr)는 (초월적) 제3자(The Third) 앞에서의 타자와의 인격적 조우(Personal Encounter of Others)라는 관념에서 책임의 문제를 논했다. 그는 책임윤리 구성에 관한 신앙(계시)의 기능적 가능성을 시사하였고<sup>26)</sup> 슈바이커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실제적 윤리를 발전시켰다.<sup>27)</sup> 벨라와 그의 동료들은 “민주적 제도화(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공적 업무들에 대한 개인의 책임 있는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구상하였고 사회와 개인의 공적 책임성을 강조했다.<sup>28)</sup> 쏜힐도 근대적 의미의 참된 자아는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했으며 삶의 통합

24) Herman E. Daly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2nd ed. (Boston: Beacon Press, 1994), 7-8/390-391.

25) Nancy Folbre,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The New Press, 2001).

26) H.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1941;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그의 생각은 전작인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29) 와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1937; reprint,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8)를 거쳐 그의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1963;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9)에서 종합되었다.

27) Cf. William Schweiker,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and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In the Time of Many Worlds* (Malden, MA: Blackwell, 2004).

28) Robert N. Bellah,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Vintage Books, 1992), 80-81.

(Integrity of Life)을 향한 지속적 개혁을 주장했다.<sup>29)</sup> 맥팔랜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봉사하는 상호 관계적 주체로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맥팔랜드가 말하는 관계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이라는 도덕적 관념 형성에 도움을 준다.<sup>30)</sup>

둘째, 대안 경제-사회적 논의들은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대안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론(Sustainable development)”은 삶의 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는 것으로 환경(달리와 캅)이나 이타성(폴브레) 같은 삶의 질적 가치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고양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제기했다. 폴브레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정치경제학적 논의에는 돌봄과 같은 불가시적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up>31)</sup> 근대 정치경제학은 불가시적 요소들의 정치경제적 가치들을 간과하여 현시대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셋째, 대안 경제-사회적 논의들은 불가시적 실체의 정치경제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위한 보다 폭 넓고 종합적인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안 경제학자들은 정치경제의 논의에 신본적 관점을 도입하거나(달리와 캅, 군즈워드와 드랑쥐) 이타주의의 경제적 가치와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폴브레)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근대 경제의 인본적-합리적 이상화, 전체주의화, 이데올로기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논의들을 단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시적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폭 넓고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시

29) John Thornhill, *Modernity: Christianity's Estranged Child Reconstructe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0).

30) Ian A. McFarland, *Difference & Identity: A Theological Anthropology*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1).

31) Folbre, *The Invisible Heart*, 20.

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굳즈워드와 드랑쥐는 현시대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을 자연환경과 사회적, 인적 자본의 차원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적 자본으로까지 논의를 확대하는데 영감을 제공한다.

넷째, 대안 경제-사회적 논의들은 사회경제윤리의 영역에서 종말론적 차원을 고려해야 할 단초를 제공하였다. 사회경제윤리의 종말론적 차원은 주로 신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는데, 슈베이커는 “탐욕(Greed)과 도덕적 광기(Moral Madness)”라는 공간적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의 시간성의 윤리적 의미 상실을 지적하면서 현대윤리의 종말론적 차원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슈베이커는 그의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Blackwell, 2004)에서 탐욕은 외부세계를 물질 추구의 대상으로 객체화함으로써, 도덕적 광기는 상황과 선호에 따라 조성된 외적규율에 윤리문제를 맡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책임성을 몰각하였고 나아가 시간 역시 자의로 처분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근대인들은 시간의 도덕적 의미도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쏜힐은 삶의 통합을 향한 성-속의 끊임없는 협력과 변화(ceaseless reformation)라는 말로, 맥팔랜드는 상호헌신을 향한 관계의 회복은 종말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함으로써 좋은 사회-경제를 향한 노력은 신적 경제(Divine Economy)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시사했다.

다섯째, 대안 경제-사회적 논의들은 건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교회와 세상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특히, 쏜힐은 근대성을 “기독교의 잃어버린 자녀(Christianity's Estranged Child)”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의일 수도 있지만 좋은 사회-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세상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할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들의 의미를 어떻게 개발하고 드러내어 좋은 경제를 향한 기독교 신앙적 반응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경제는 근대성이 주장해 온 것과 같은 성-속으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창조경제를 회복해야 할 사명은 선교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세계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과 구원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를 전제하고 좋은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들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것을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그것들은 신앙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윤리, 그리고 삶의 질적 가치를 전제한 절제된 양적 성장의 요구와 같은 것들이다. 칼빈의 사상이 제공하는 이러한 자산들을 토대로 좋은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개혁신학적 종합과 제안을 시도해 보자.

## V. 개혁신학적 종합: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더글라스 할(Douglas J. Hall)은 기독교적 앎(Christian Knowing)은 단순한 지식(knowledge)이나 지식에 대한 가치판단(Acknowledgement)이 아니라 믿음(Trust)에 관한 것이라고 갈파했다.<sup>32)</sup> 다시 말해 기독교적 지

32) Douglas J. Hall, *Thinking the Faith: Christian Theology in a North American Context* (Minneapolis: Augsburg, 1989), 372-373.

식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 앞에서 책임적이어야 할 지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와 직결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칼빈은 기독교 신앙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 즉, 하나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다”고 하였다.<sup>33)</sup>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신앙의 지식은 의로운 도덕적 행동을 견인한다. 이러한 개혁신학적 신앙관은 사회경제의 영역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유와 그 가치를 재고해야 할 단초를 제공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칼빈은 두 가지 지식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말하면서 그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한다. 그는 이 두 가지 지식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Pietas Coram Deo*)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신앙은 단순히 어떤 신성에 대한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반한 지식과 행위의 문제에 직결된다. 개혁신학은 개인과 사회(기관)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 안에서 대속적 사회 건설을 위하여 협력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칼빈을 비롯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참 지식을 이끌고 이 지식에서 참 도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지식은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참 도덕을 이끄는 이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롬 1:17).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을 때 이 믿음은 성도의 믿음을 견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혹은 예

3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CC, vol. 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I,2,2: 545.

수의 믿음으로 견인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 때의 믿음은 중의적이다). 성도의 믿음을 견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칼빈의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믿음의 회복은 좋은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참된 구원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처음 인간들(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전수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로부터 발전되어 온 이기적인 유사-책임성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믿음과 지식은 근대성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분리되고 심지어 서로 대립하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두 가지 실체이다. 근대성은 분리될 수 없는 이들을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을 제거하였다. 칼빈의 개혁신학은 이것의 회복을 주장한다.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소명이나 칭지기의식 그리고 섭리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개혁신학적 관념을 이끌어 준다. 예컨대, 섭리론(The Doctrine of Providence)은 (인간 본성으로서의) 개혁신학적 책임성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성도의 책임을 견인한다. 섭리론적(종말론적) 책임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포괄한다. 기독교 종말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행한 바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없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책임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식으로 섭리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성을 문제 삼는다. 이 책임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말론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시간적 차

원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적 삶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생의 물질과 삶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4)</sup> 이것은 쥘리론에서 연유한 것으로 좋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과 연계되어 있다. 칼빈의 쥘리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더불어 그의 쥘리 가운데 그리고 그 앞에서 있는 인간의 책임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신앙은, 칼빈이 분석한 바와 같이, 예컨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이라는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는데<sup>35)</sup> 동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과 쥘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 선 존재라는 인식은 세 가지 방향에서 사회 윤리적 책임을 강화한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함으로써 사회 윤리적 책임 자체를 강화한다. 둘째, 그것은 개인적인 그리고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책임을 포괄하여 사회 윤리적 책임의 지평을 확장한다. 셋째, 그것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차원의 책임을 말함으로써 전인적 도덕성을 지향하게 한다.

칼빈은 영혼을 육체를 밝히는 실체로 인식했다.<sup>36)</sup> 세속의 삶은 천국의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도 했다.<sup>37)</sup> 사회-경제적으로 이것을 전이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질적 가치와 양적 풍요는 상호 협력적이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마치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온 교회와 국가, 신앙과 이성, 성과 속은 협력적이지 적대적인 실체들이 아니다. 물론, 루터와 같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서처럼 칼빈에게 있어서도 영적 필요는 물질적인 것에 우선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질적 필요를 전제하

34) *Ibid.*, III,10.1: 719-720.

35) Cf. *Ibid.*, II,8: 367-423.

36) *Ibid.*, I,15.6: 192.

37) *Ibid.*, III,10.1: 719-720.

는 한 양적 풍요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배척될 것이 아니라 적절히 통제되면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은 영적 풍요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부의 편차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는 공공선의 범주 내에서, 그것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8)</sup> 칼빈은 어떤 다른 종류의 정치경제적 기관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가계정부(a household government)”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든 구성원들 위에 역사하는 연합하는 영(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사적 재산을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그 가운데 물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이가 없는 그러한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sup>39)</sup>

칼빈에게 있어서 개인과 기관은 모두 여기에 책임적인 주체가 되어야 했다. 이들은 양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하여도 책임적인 주체들이다. 이러한 통합성은 건강한 사회-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의 사회-경제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혁신학적 종합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좋은 경제(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성도)와 세상(사회기관들)은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연합하는 영(성령)을 통한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된 개인들이 사회기관들을 책임적인 주체들로 변화시키고 다시 변화된 기관들이 개인들을 책임적인 주체로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기대

38)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 vol. 10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II Cor. 8:15: 114.

39)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1-13*,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vol. 6 (Grand Rapids, MI: Eerdmans, 1965), Acts 2: 44: 87-88/Acts 4: 32-34: 128-131.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의 윤리 회복을 요구한다. 좋은 경제는 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절제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돌봄의 경제이다.

## VI. 맺는 말: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시론적 제안

신앙은 이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실체적 능력이다. 그런데 신앙의 이 실체적 가치가 근대성의 전개과정에서 상실되었다. 좋은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현시대는 근대성이 망각한 이 가치들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 개혁신학은 교회가 역사적 실체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소명을 받았으며 사람과 사회가 모두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 가운데서 책임적인 주체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주장한다.<sup>40)</sup>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돌봄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참된 연대와 책임의 윤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의 것일 때 비로소 온전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물론 도덕적·실천적 차원에서도 좋은 사회경제윤리의 창설자요 인도자가 되신다.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달하고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접착점을 찾을 것인가?

기독교 신학이 추구하는 돌봄의 경제는 오늘날 대안적 사회·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삶의 질적 가치에 주목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 주체성과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은 기독교 신앙의 저 종말론적 차원에서 사회경제 윤리의 새로운 지평을 재

40) 여기에는 물론 교회의 역사적 과오들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인본적 교조성의 위험으로 인해 교회는 때로 전체주의 권력에 봉사하거나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지지자 또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 종말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치며 어떠한 종류의 인본적 이상화도 배척한다. 이것은 오늘날 공동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주체들이 누구도 배타적이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주체들이며 동시에 그들은 좋은 경제로의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존재들임을 상기시킨다.<sup>41)</sup> 칼빈의 사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분배는 삶의 질적 필요와 충족을 전제하고 그것을 통하여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생의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이생의 물질적, 경제적 풍요는 저 생의 삶을 위한 준비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물질적 경제생활은 영적으로 절제되어 행사될 때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절제의 윤리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것은 삶의 질적 가치 충족을 전제한 절제된 양적성장의 추구로 나타날 것이다.

전통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길로서의 개혁주의 정치경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 주체라는 인식 아래서 양 극단의 주장들을 포섭한다. 칼빈이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협력적인 관점에서 보았듯이 개혁주의 정치경제는 양적 풍요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 개혁주의 정치경제는 개인적 풍요를 위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공선에 부합하도록 획득되고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감안하는 돌봄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개혁주의 정치경제는 다음의 가치들 즉, 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사적 재산권의 행사,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이생의 물질적 선용과 같은 주장들을 독려한다.

41) 삶의 질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경제가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속적 개혁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천상의 삶을 준비하는 이생의 삶”과 같은 종말론적 사고는 돌봄의 경제논의에 참고 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협력적 관점은 신앙과 이성, 교회와 세상(세속권력), 성과 속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세상과, 세상은 교회와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양자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할 기관으로 주어졌다.<sup>42)</sup> 그렇다면 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세상과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신적자본의 문제를 먼저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좋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자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이들 자본들을 개발하고 그 의미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는 일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하나님의 경제 회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하나의 해석 과정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적 자산들이 세속적으로 해석되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이해되고 그 의미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정의되고 수렴되는 일련의 (종말론적) 과정을 내포한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제 회복을 위한 기독교 신앙적 대응과 실천이 견인되고 밖으로는 세상과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돌봄의 경제를 회복하는 실질적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42) 이것은 칼빈의 신학에서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 기관의 책임성은 개인의 책임성을 견인한다. 개인의 변화를 통한 기관의 변화 그리고 다시 기관을 통한 개인의 책임적 주체로의 변화는 믿음의 회복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이성과 협력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지속적인 변혁의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제회복을 지향한다.

## 참고문헌

- 김병연. "에덤 스미스가 본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현상과 인식』 봄/여름. 2007, 13-35.
- 김호연. "돌봄의 경제를 향한 기독교 윤리적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 2012, 225-249.
- Augustine. *City of God*. Translated by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2003.
- Bellah, Robert N.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Vintage Books, 1992.
- Calvin, Joh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12 vo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CC.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Daly, Herman E. and Cobb, John B. Jr.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2nd ed. Boston: Beacon Press, 1994.
- Folbre, Nancy.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The New Press, 2001.
- Goudzwaard, Bob and de Lange, Harry. *Beyond Poverty and Affluence: Toward an Economy of Care*. Translated and Edited by Mark R. Vander Venne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5.
- Hall, Douglas J. *Thinking the Faith: Christian Theology in a North American Context*. Minneapolis: Augsburg, 1989.
- Hayek, F. A. *The Road to Serfdom*. 194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 \_\_\_\_\_.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 no. 4 (September 1945): 519-530.
- Hobbes, Thomas. *Leviathan*. Edited by Richard Tuck. Rev. Studen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orkheimer, Max and Adorno, Theodor W.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
- Kennedy, Gavin. *Adam Smith's Lost Legacy*.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2005.
- 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vestment, and Money*. 1935. Reprint, San Diego: Harvest/Harcourt, 1964.
- Leijonhufvud, Axel.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 of Keyn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Studen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McFarland, Ian A. *Difference & Identity: A Theological Anthropology*.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1.
- Niebuhr, H. Richard.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1937. Reprint.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The Meaning of Revelation*. 1941.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6.
- \_\_\_\_\_.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1963.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9.
- \_\_\_\_\_.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29.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1941. Vol. 2, 1943. 2 vols. Repri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Novak, Michael.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York: Madison Books, 1991.
-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1944.
-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and the Discourses*. Translated by G. D. H. Cole.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 Schweiker, William. *Responsibility &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_\_\_\_\_.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In the Time of Many Worlds*. Malden, MA: Blackwell, 2004.

Thornhill, John. *Modernity: Christianity's Estranged Child Reconstructe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0.

Tucker, Robert C. ed.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W. Norton, 1978.

논문투고일: 2014. 06. 26.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최근의 자본주의 비판은 주로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율성과 양적 성장을 통한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소위 사회주의 이론들도 사실은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근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경제의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논쟁의 두 축(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을 배태한 배경 혹은 근원으로서 근대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성(Modernity)은 개인의 주체성과 합리성에 천착하고 그것들을 과대평가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은 평가 절하되었다.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신앙은 감안되거나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되었고 공공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연대와 책임”이라는 기독교 윤리적 가치는 논외의 것이 되었다. 정치경제학은 과학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삶의 질의 문제보다는 양적 성장에 몰두하였고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불의한 정치경제적 결과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근대성의 사상사적 전개를 먼저 검토하고 그 연장선에서 근대의 주요 정치경제학적 주장들을 개관한다. 이것은 근대성의 이념이 정치경제학에 전이되면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적 가치들이 제거되었는지를 추적해 보기 위한 최소한의 연구이다. 그리고 나서 최근의 윤리적, 사회학적, 그리고 신학적 논의들로부터 좋은 사회·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중요한 착안점들을 찾는다. 이러한 추적과 발견들을 토대로 본고는 주로 칼빈의 사상을 참고하면서 돌봄의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시론적 제안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양비론(신자유주의와 신좌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양시론(개인과 사회, 신앙과 이성, 교회와 국가 또는 세상)에 이른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전수되어 온, 그러나 근대성이 잃어버린 사회 윤리적 가치들이 회복되고 좋은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 신학적, 교회 내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삶의 질적 가치에 관한 것들이다. 이로써 교회는 (1) 현대 정치경제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대와 책임이라는 기독교 윤리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와 (2) 삶의 질의 문제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절제된 양적 성장

이라는 건강한 사회경제윤리가 나온다는 점을 제기하고 (3) 기독교 신학은 돌봄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주어진 신적자본들(Divine Capitals)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돌봄의 경제, 개혁신학, 연대와 책임, 종말론적 차원, 협력적 관점

---